

- 그간의 시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이었던 교황식 선출방식은 다수당 독점, 정책 경쟁 없는 선거 등의 문제로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시민사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.
-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인 후보등록제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에 더해, 시의회 내에서도 최근 전체 의원 간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후보등록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.
- 이런 흐름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지난 6월 14일 후보등록제 도입을

골자로 한 ‘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’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발의했고, 이를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에 따라 후보등록제 도입이 최종 확정되었다.

- 개정된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단 선거 입후보자는 선거 이틀 전 18시까지 의회사무처로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, 절차에 따라 등록한 의원만이 의장단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.
- 등록한 후보자들 중 의장 후보자는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이후 투표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한다.
- 상임위원장은 선거 하루 전 18시까지 등록을 해야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, 의장 선거와 달리 정견 발표 없이 선거를 진행한다.
- 한편, 대구시의회의 이러한 의장 선출 방식의 변경은 1991년의 개원 이후 31년 만에 처음 있는 변화다. 개정된 선출 방식은 오는 7월 4일로 예정된 제9대 의회 최초 집회에서 전반기 의장단 선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.
- 대구시의회가 후보등록제를 도입하면서 후보등록제로 의장을 선출하는 광역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아홉 군데가 되었다.
- **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**은 “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방식 도입으로 주민들이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상을 향한 또 하나의 발판이 마련된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더욱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”라고 소감을 밝혔다.